

손주 자전거 고쳐주시는 할아버지는 '금손 시민상'입니다

장난감·의류부터 가전까지 '똑딱'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공모전 '감동상' '금손 시민상' 20명 선정

"광주의 수리·수선 달인을 찾아라" 자칫 수리나 수선을 잘하는 기능 장인을 찾는 구호 같지만,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공모전의 타이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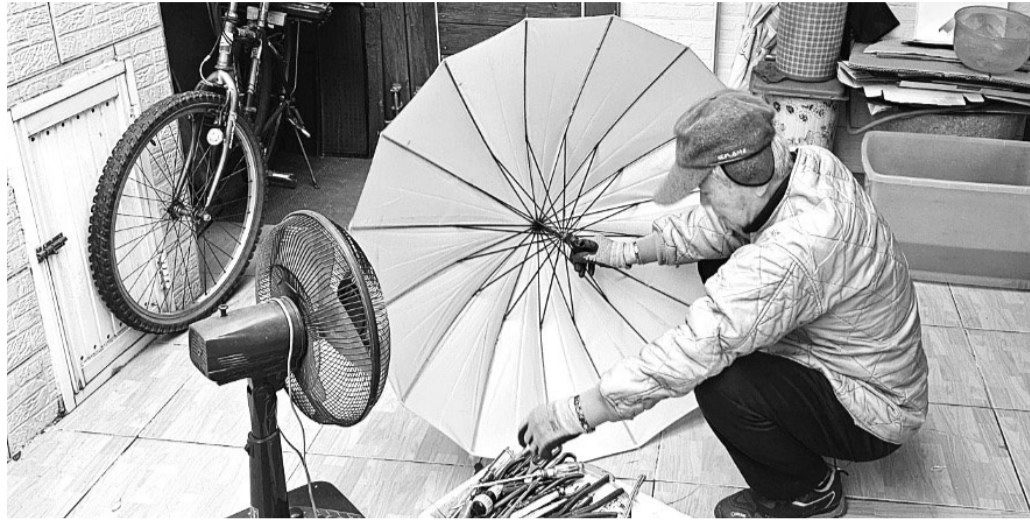
망가진 제품이나 옷 등을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기후위기를 막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공모전이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 12일 고장 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수리·수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리·수선 달인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물건을 쉽게 사고 버리는 소비의 시대에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됐다.

총 4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수리·수선 감동상'과 '금손 시민상'에 각각 10명이 선정됐다. 접수된 사연도 다양했다.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달인, 무엇이든 똑딱 고치는 할아버지, 남편의 솜씨를 소개하는 시민, 아파트에서 주민이 내어놓은 고장 난 물건을 고쳐서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씨 좋은 이웃을 소개하는 사연들이 접수됐다. 동네의 솜씨 좋은 수선 업체와 굿투방을 소개하는 지역민들도 있었다.



가족들이 고장났다고 가져온 우산과 선풍기, 손자들의 장난감을 똑딱 똑딱 고치는 할아버지.

수리·수선 사례로는 의류 수선이 가장 많았고, 장난감, 가방, 전자제품, 가구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접수됐다. 의류의 경우 수선이 가장 많았지만, 오래돼서 안입거나 찢어진 옷을 활용해 파우치, 가방 등의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수리·수선 감동상'을 받은 한 응모자는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배운 재봉기술로 할머니의 옷들을 수선하기 시작했다"며 "패스트패션 산업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새 옷을 사는 대신, 고쳐 입기를 생활화하고 있다"고 접수 사연을 적었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버리는 선풍기,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을 고쳐서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

을 실천하는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은 '금손시민상'으로 선정됐다.

그는 업무시간 틈틈히 시간을 내 여름내 아파트 단지 내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서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수리를 한다고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보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에어컨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보다 선풍기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수리를 하고 있다"고 전기과장의 뜻을 대신 전했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주는 아버지, 어린 손주의 자전거와 집안의 각종 전자제품을 고치는 할아버지 등도 '금손시민상'의 수상자로 뽑혔다.



버려진 가구를 이용해 만든 화분 테이블.



오래되고 헤진 청바지를 사용해 만든 가방.

공모전 응모자들은 수리·수선을 하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손에 익숙한 것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등을 꼽았다.

심사 위원들은 실용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물건의 쓰임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수선인지 여부와 직접 내 손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마음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평가했다.

심사결과 총 28명에게 '수리·수선 참가상(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권 1만원)', 10명에게 '수리·수선 감동상(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권 3만원)', 10명에게 '금손 시민상(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권 5만원)'을 지급했다. 시민들의 수리·수선 경험은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블로그를 통해 공유된다.

이경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이 많이 접수됐다. 센터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달인들의 사연처럼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센터를 개관하면 더 많은 사람이 수리·수선에 관심을 두고 직접 물건을 고쳐 쓰는 생활을 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생활을 쉽게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위해 광주에서 처음 건립되는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내년 1분기에 개관될 예정으로 현재 산수 2동에 건립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에너지 절약·생산 동시에 할 수 있게 물리적 지원 있어야”

광주 복구, 기후위기 대응 및 방향 설정위한 정책토론회

광주시 복구의 에너지 정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동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광주 복구 기후위기 대응 및 방향 설정을 위한 2045 탄소중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북구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과 오병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연구개발실장이 맡았다.

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는 높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 방향성과 전략이 부재하다"면서 "이 때문에 복구 탄소중립은 단순 캠페인 성 활동에만 국한돼 주민동원식으로 진행되면서 피로도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의 당위성 알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탄소

중립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절약과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물리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아파트 비중이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북구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확대, 아파트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나미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북구는 기후환경과 있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관련 업무는 주민자치과(에너지전환마을), 시장산업과(재생에너지), 청소행정과(자원순환), 공원녹지과(탄소흡수원 확대) 등으로 사업이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구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숙희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은 "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행정의 역할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자료·전문지식을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설명회 등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북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북구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행복한 그린도시 광주 복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북구는 세대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탄소복지 도시, 지속가능한 마을기반 탄소공동체 도시, 탄소제로를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도시를 전략으로 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나눔



광주시 동구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는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충장동 지사협은 여관·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 중인 돌봄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 15채와 전기매트 10세트를 전달했다. 충장동 지사협은 현재 족방 등 비주택시설에

14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것을 파악해 향후 난방용품 필요 세대를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종철 위원장은 "동절기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하는 이웃들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난방용품을 후원받은 돌봄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전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전국민의 경제 부담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